

# 동성애의 실체

동성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 1. 가까이 다가온 동성애 코드 ■

나 역시 매우 어린 시절에 동성애적인 경험이 시작되었지만,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문득 불안한 마음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다. 어떤 부모가 자신의 사랑스런 아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본격적인 동성애자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경험들이 잠깐이나마 스쳐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도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로서, 아이들이 나의 품을 떠나 자신만의 생활을 갖기 시작할 때, 어떻게 그 아이들을 지키고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보게 된다.

나는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때는 지금처럼 손안에 꼭 들어오는 스마트폰으로 거의 모든 문화 콘텐츠들에 접속하는 것

은 불가능했지만, 부모님 몰래 만화책이나 비디오, 인터넷 접속 등을 통해 원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는 있었다. 외국 영화 속에서 간간히 보이던 남자들 간의 사랑의 감정은 낯설긴 했지만 흥미로웠다. 작가들은 동성애 관계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마치 농담을 던지듯 장난스럽게 한 두 장면을 그려 놓았었다. 내가 즐겨보는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있을 줄 우리 부모님은 모르셨을 것이다.

미디어 콘텐츠의 발달은 동성애에 대하여 굳게 닫혀 있었던 대중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었다. 연예인들이 90년대에 처음 커밍아웃을 하던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들을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을 어려워했다. 그러나 동성애 코드를 드러내고도 아름답게 포장된 드라마와 영



● 박진권 디렉터

탈동성애자이고, 현재 아  
이미니스트리 대표이다.

화들은 대중들에게 동성애라는 주제를 친숙하게 만들어 주었다. 지금은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동성애에 관한 수많은 콘텐츠를 접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당장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다.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낸 퀴어축제는 마치 노이즈 마케팅처럼 대중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성애라는 주제를 우리 사회의 중심 이슈로 만들어 놓았다.

동성애 코드는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와 있다. 내 아이의 친구의 이야기 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시대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돌이켜야 하는 경험, 지나가야 하는 감정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리 아이들은 동성애자가 되어도 되고, 그런 경험을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되며, 그런 감정을 굳이 부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2.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자 ■

이전 글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까운 형의 제안으로 동성애적 경험이 시작되었다. 그는 나에게 옷을 벗고, 레슬링을 하자고 했다. 그저 놀이일 뿐이라고.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누군가 나에게 나의 벗은 몸을 보여주거나 만지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부모님께 알려야 한다는 것을 훈련 시켰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 24시간을 붙어 있으면서 일

거수일투족을 관찰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동성애 뿐 아니라 이성 간의 성적 경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사회 분위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에게 건강하게 성교육을 해주는 부모들이 많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소중한 몸을 지키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타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도와주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3세부터 성교육을 시작한다고 한다. 36개월용 성교육을 위한 한 그림책에는 초등학교 수준의 정확한 생물학적 정보가 담겨져 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고, 임신하는 기간과, 출산 과정까지 자세하게. 그리고 초등학교에 올라가면 성관계하는 방법과 피임법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고 한다. 유럽의 몇몇 나라들과 일본 역시 이런 식의 성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향을 따라가는 중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내용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우리의 정서와 삶의 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가정을 이루게 하며, 임신과 출산을 통해 한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광범위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회적인 성공은 이룰 수 있을지언정 건강한 가정을 꾸리며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반드시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

게 되어있다. 단순하게 너의 몸은 너의 것이니까, 너의 자유 의지를 따라 이렇게 사용하고, 이런 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성교육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성에 대한 무질서를 열어줄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성의 도덕성에 대한 원칙들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성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로 말이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사춘기 이전의 성적 문제들은 부모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 **지금은 아이들이 10-12세 정도가 되면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성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다.**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어린아이들이 이성과 짝을 이루어 손을 잡아도 특별한 느낌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포르노에 노출되었거나, 성관계 장면을 목격했거나, 성적인 경험들이 열린 아이들은 일찍부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다. 부모가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고 관심 있게 살필 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부모가 함께, 그리고 자연스럽게 올바른 성교육을 해준다면 중독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성 정체성의 혼란도 마찬가지다. 여성스러운 남자아이, 남성스러운 여자아이가 있을 수 있다. 남자도 분홍색을 좋아할 수 있고, 여자도 운동을 좋아할 수 있다. 그들의 기질적인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성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들의 성이 잘못 만들어졌거나, 신적 존재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자신의 성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러나 사춘기로 들어서면 성 정체성의 방향을 막기는 더 어려워진다고 한다. 두려움이 아닌 존중과 사랑으로 진정한 성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 3. 용납, 회복의 시작 ■

나는 대학교 때 동기들에게 커밍아웃을 한 적이 있었다. 누군가는 나를 진정으로 걱정해주었고, 누군가는 나를 비난하며 수군거렸다. 그때 나를 위해 울어주었던 한 누나의 격려로 나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동성애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아직은 힘겨웠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지지해 주는 인생의 멘토를 만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어린 나이에 어찌 보면 경솔했고, 그 사건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얻은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었다.

몇 년이 지나서 나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공식 커밍아웃을 했다. 동성애자로서가 아니고 탈 동성애자로서. 나와 같이 동성애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동성애를 미화하는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고, 혼자가 아니었기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나의 결정을 지지해 주는 가족들과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동성애에 빠져 고민하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을 만나며 느끼는 것은,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탈 동성애의 의지가 있을지라도, 그 질기고 질

긴 싸움을 응원해 주며 기다려 줄 누군가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비난과 원망을 듣게 될 것을 알고 있다. 자신이 감시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친구나 선생님에게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누구보다 그들을 위하고, 누구보다 그들을 도우며,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모에게 나아갈 수 있다면! 자녀들이 마음껏 다가올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자. 자녀들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그 어떤 친밀한 이들보다 바로 부모에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부모가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고, 돕기 원한다는 것을 자녀들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제로 어떤 내담자는 부모가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녹아 동성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회복하기도 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 포르노에 중독되거나, 위험한 성관계에 열려 있을 수도 있다. 누군가는 이미 동성애자이거나, 성 정체성의 혼란이 굳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잘못이거나, 또는 전적인 부모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들을 지나치게 탓하지도 말고, 스스로 과도한 자괴감에 빠지지도 말아야 하겠다. 그것들을 해결하는 완벽한 정답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첫 열쇠는 용납에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자유로운 성생활이나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과 선천적인 성을 부정하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지만, 갈등을 겪으며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은 얻어야 한다. 그들이 왜 방황하고 있는지 들어줄 수 있어야 하겠다.

#### 4. 흔들릴지라도 타협은 없다 ■

많은 부모와 자녀들을 상담하면서 자녀들의 뜻이 완고할 때 부모가 흔들리는 것을 본다. 부모에게 동성애에 대하여, 성 정체성의 혼란에 대하여, 커밍아웃을 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자녀들에게 돌이킬 의지가 없을 때, 부모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흔들린다. 더 이상의 갈등을 견뎌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였던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다고 믿고 싶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타협은 없어야 한다고 믿는다. 아무리 자신의 신념이 강한 동성애자일지라도, 동성애에 더 깊이 빠져들수록 결국은 이 세계가 매우 위험하며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선하고, 올바르며, 분명한 것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말자.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아무리 그들의 의지가 견고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하겠다.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돕고, 언젠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역사는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는, 가치 있는 신념을 굳게 가진 자들을 통하여 움직인다. 우리의 감정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육체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장 선하고, 올바르며, 확실한 가치들을 끝까지 따라가자. 우리가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